AI·명상 만남…마음돌봄 미래 보다

박훈 연구원의 'AI 힐링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 참관기

동국대 종학연구소 9월 두 차례
AI 등 활용 명상 체험 행사 진행
과학기술 접목 마음돌봄 인기 UP
'기술 어떻게 활용하나' 화두 던져

박훈 동국대 선학과 박사수료생

'AI 힐링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2026 마음돌봄, 미래를 체험하다'는 9월 19~20일 서울 토포하우스에 이어 9월 29~3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IF ZONE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뇌파 측정과 뉴로아로마, 뇌파만다라, AI상담, 소셜로봇, 로봇명상, VR명상, 싱잉볼 반응형 디지털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었다.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 설명하기보다, 평소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상태를 잠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어쩌면 요즘 무심코 지나치고 있던 자신의 마음에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이 방향을 가리켜 주는 느낌이었다.

참가자들은 향기를 맡기 전과 후의 뇌파 변화를 수치와 그래프로 살펴봤다. 막연하게 '요즘 내 마음이 이런 것 같다'고만 생각했던 상태를 눈앞의 데이터로 확인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바라봤다.

싱잉볼의 울림에 따라 빛과 파동이 움직이는 미디어아트 앞에서는 사람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 소리는 공간에 퍼지고, 그 울림은 화면 위에서 잔잔한 파동으로 이어졌다. 기술이 고요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에 머물도록 돕는 장면이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지는 않을지, 인간의 판단과 관계를 약화하지는 않을지, 우리의 삶이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이 경전 한 구절을 떠올려본다.

"젖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의 굴레를 더한다."

AI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은 기술이라도 사람을 통제하고 소외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람의 불편을 덜고, 마음을 살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데 사용한다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술의 모든 책임을 개인의 선한 마음에만 맡길 수는 없다.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과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기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사회적 논의가 함께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술을 설계하고 교육하며 활용하느냐에 따라 AI가 나아갈 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29~3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IF ZONE에서 열린 'AI 힐링가이드와 마음돌봄 체험'에서 한 참가자가 AI로봇에 자신의 감정을 체크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보여준 AI 마음돌봄은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거나 단정적으로 진단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뇌파와 그래프는 마음의 전부를 설명하는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게 하는 하나의 질문이 아닐까 싶다.

AI시대의 마음돌봄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시작은 새로운 기계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누구를 돌볼 것인지 묻는 우리들의 지금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기자칼럼

불교, AI 윤리 주체로 거듭나야

유튜브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영상이 종종 눈에 띈다. 탄허·성철 스님 등 유명 스님들의 생전 얼굴과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뒤, 실제 법문과는 무관한 주술적인 내용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기만적 콘텐츠다. 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축적한 소중한 데이터마저 영리 목적으로 무단 활용되기도 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는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소수자 차별, 개인정보 유출,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AI 독점에 따른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AI가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재귀적 자기개선'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르면 내년쯤 인간을 넘어서는 범용인공지능(AGI)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불교계가 AI 윤리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불교계는 AI 윤리 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종단 차원의 공식 입장과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속도는 내지 못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AI부디즘학술원장 보일 스님의 '불교 AI 윤리 선언' 제안은 불교계의 역할과 책임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톨릭이 '로마 콜'과 교황 회칙 등을 통해 AI 윤리를 단계적·체계적으로 정립해 온 것처럼, 불교계도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일 스님이 제안한 '조계종 AI 윤리 7대 강령' 채택을 비롯해 상설 AI윤리위원회 신설, 사찰 실무 지침 마련 및 종립 교육과정 연계 등 6대 실행과제를 종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불교 고유의 존재론(불성·연기·무아)과 실천론(자비·지혜·중도·방편)에 기반을 둔 윤리 기준은 AI 시대의 소중한 지남(指南)이 될 것이다. '모든 존재의 불성'에 근거한 존엄성, 연기적 상호 조건성, 관계론적 사유를 담아냄으로써 기술 발전이 불러올 사회적·심리적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스님의 제안이 종단의 구체적 종책과 살아있는 규범으로 구현되길 기대한다. 불교계가 AI 윤리의 주체로 거듭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배희정 편집국 기자

300년 고찰…"수행환경·조망권 침해 우려"

석불사, 10월 12일 행정심판 청구
경관 심의 여부와 절차 의문 제기

한강 변에 위치한 300년 고찰 서울 마포 석불사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상황에 놓여 수행환경과 한강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

석불사(주지 경륜 스님)는 10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2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된 배경과 마포구청의 건축허가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웅전과 미륵부처님이 한강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조성된 석불사는 도심 속 포교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석불사 정면에 7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가 승인되면서 사실상 한강 조망권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


석불사에서 바라본 한강 풍경.

석불사 한강조망권보호추진위원회(회장 박정수, 이하 위원회)는 사찰 수행환경과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은 물론, 증축 계획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경관 심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뒤늦게 증축 계획 사실을 안 석불사는 주민들과 마포구청에 네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8월 13일 건축허가 관련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허가 과정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내렸다.

위원회가 전달받은 마포구 민원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25년 제11차·2026년 제1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2025년 심의에서는 보강 계획 등으로 보류됐으나, 이후 심의에서는 조건부 의결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만 시공 안전, 하수량, 차량 진출입 등에 대한 검토일 뿐 한강 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관련한 경관 심의 조건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 측 지적이다.

위원회는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물과 역사·문화자원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 공공 원칙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 온 한강 풍경까지 개발의 이익 앞에서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충건 마포구청 도시환경국 건축과 건축운영팀장은 "해당 증축 계획은 경관 심의를 포함해 관련 검토를 거쳐 승인된 사항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희 기자

올해의 포교사

전북지역단 군포교2팀

장병 마음 보듬는 자비 보살

팬데믹에도 군포교 이어가
자발 참여 이끌며 군법당 '활기'
2026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


남원 호국홍제사 군법당에서 전북지역단 군포교2팀 포교사들과 장병들이 함께한 모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병들의 발길이 뜸했던 남원 호국홍제사 군법당에 이제는 매주 30여 명의 장병이 찾는다. 따뜻한 면담과 정성껏 마련한 간식으로 장병들의 마음을 보듬어 온 이들의 노력 덕분이다. 군법당을 활기차게 일궈 낸 주인공은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군포교2팀. 이들은 9월 12일 장성 백양사에서 열린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았다.

장충국 팀장을 비롯해 박갑기·강석훈·강일수·황숙주·이형수·이승규·김성규·임경란·최상덕·곽혜숙·김영희·유혜숙·이정순·이효순 포교사 등 15명이 팀을 이루고 있다.

처음부터 법회가 활기를 띤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장병들의 법회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팀원들은 단 한 명의 장병만 참석하더라도 매주 법회를 열고 참선 교육을 이어갔다. 연꽃 컵 등 만들기 체험을 마련하고 장병들에게 단주를 선물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관심을 이끌었다. 꾸준히 법회를 이어간 정성이 쌓이면서 참여하는 장병들도 점차 늘어났다.

이들의 활동은 법회 운영에만 머물지 않았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포교사들은 인생 선배로서 장병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건넸다.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진로 고민부터 군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장병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관심과 소통은 장병들의 변화로 이어졌다. 법회에 소극적이었던 장병이 스스로 법회 운영을 돕는가 하면 전역 후 사찰에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다.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제대 후 포교사로 활동하며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장병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팀원들에게 포교사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안겼다.

장충국 팀장은 "처음에는 까칠하고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던 한 장병이 어느새 표정도 밝아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이 같은 크고 작은 변화가 지금의 법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장병들의 발길을 이끈 또 다른 힘은 정성껏 마련한 간식이다. 추석에는 송편을 직접 빚어 나누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맞춤형 간식을 준비해 장병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나눔은 장병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법회에 늦게 참석한 동료에게 자신의 햄버거를 기꺼이 내어주는 등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군법당이 종교 활동의 공간을 넘어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장 팀장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생활을 하는 젊은 장병들에게는 가족의 손길이 그리울 수 있다"며 "포교사들은 장병들을 손주나 아들처럼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교2팀은 장병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며 법회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포교사들의 신심과 열정으로 이어진 법회가 꾸준한 소통과 나눔을 바탕으로 군법당의 활기를 되살리고 있다. 박지운 기자



로터스월드, 라오스 동자승에 자비나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9월 29일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 왓파오(Wat Phao) 사찰에서 생활하는 동자 스님 280여 명에게 쌀 2000㎏, 라면 80박스 등 식료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4월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한 NGO 공모사업 '지속가능! 공공가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로터스월드의 라오스 사찰 지원은 올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현희 기자



노래로 마음 잇는 '외국인 노래자랑'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10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외국인 한국 노래자랑대회'를 처음 개최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 9개국 출신 13명이 참가해 'K-SONG'을 주제로 가요와 가곡, 민요, 찬불가,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노래를 선보였다. 이날 금상과 인기상은 노란색 수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필리핀 출신 덱스터 파텐테 씨가 차지했다. 박지운 기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땅 한 평 원력'

동국대 일산병원에 1080만원
산사문화축제 유공자에 감사장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이 사부대중의 정성을 모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관 건립 기금 1080만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0월 11일 대웅전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관 건립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 1080만원은 일산병원이 추진하는 신관 건립 캠페인 '땅 한 평의 원력'을 위해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모은 정성이다.

혜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음공부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부대중의 정성이 병고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밑거름이 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지난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의료환경 개선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한 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땅 한 평의 원력' 기금 조성을 통해 불교계의 정성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원 이날 정기법회에서 10월 3일 봉행한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 기념 산사문화축제'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힘쓴 천주현 신도회장과 행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